

시각효과 뛰어난 주제별 학습대백과사전

웅진미디어 펴냄 「비주얼 박물관」

6천여 장의 생생한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제별 학습 대백과 사전”인 「비주얼 박물관」(1차분 28권)이 (주)웅진미디어에서 출간됐다. 영국 최대의 출판사인 돌링 킨더슬리(Dorling Kindersley)사가 ‘렉시그래픽 디자인(Lexigraphic design)’ 개념을 창안해 그 방법대로 만든 「Eyewitness Guide」를 번역한 것으로, 영화나 텔레비전이 주는 강력한 영상효과로써 정보를 제공한다.

렉시그래픽 디자인이란 한 페이지에서 글과 사진이 일대일로 대응되면서 정보를 3단계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적이고 수동적인 편집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편집방식인 셈이다. 그 생동감 덕분에 이 책은 지난 88년 처음 발간된 이래 전 세계 40개국에서 1500만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웅진미디어 측은 전한다.

‘렉시그래픽 디자인’ 방식의 백과사전

내년말 총 40권으로 완역될 이 책의 제1차분 28권의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새」 「암석과 광물」 「동물과 사람의 뼈」 「무기와 갑옷」 「나무」 「연못과 강 동식물」 「나비와 나방」 「스포츠」 「껍데기와 등딱지」 「초기인류」 「포유류」 「음악」 「공룡」 「식물」 「해안의 동식물」 「깃발과 국기」 「곤충」 「화폐」 「화석」 「물고기」 「자동차」 「항공기」 「고대 이집트」 「고대 로마」 「결정과 보석」 「파충류」 「발명」 「날씨」가 그들이다.

「비주얼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백과사전의 방대한 정보량과 이야기책의 재미가 결합돼, 어느 권 어느 페이지나 시선이 가는 그곳이 바로 첫췌면 첫 페이지가 되어 끝까지 읽힌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제20권 「물고기」편을 집어 손이 가는 대로 책을 펼치면 금방이라도 튀어나오고 손으로 만지면 놀라 달아나버릴 것만 같은 사진이 두 페이지를 압도한다. 그 책의 22, 23페이지는 산호를 장식하듯이 감고 있는 3마리의 해마가 독자의 주의를 끌고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페이지를 압도하는 이미지가 본문이나 도입문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렉시그래픽 디자인의 제1단계인 것이다.

“머리는 서양장기의 말처럼 생겼고, 꼬리는 원숭이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 몸통은 나무에 조각된 것처럼 우툴두툴하고, 눈은 카멜레온을 닮았다. 또, 수컷이 새끼를 밴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정확한 문장을 따라 읽으면 “수컷이 새끼를 밴다”는 구절이 눈에 밝혀 호기심이 한껏 부풀어오르면 ‘보조 이미지’인 “새끼를 밴 수컷”의 사진과 출산과정에 대한 그림이 제시된다. 이것이 제2단계로서 “독자는 사진을 찬찬히 보면서 글을 빠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

“번식기가 가까워지면, 수컷 해마는 아랫배 앞에 있는 자루를 부풀려서 알을 받을 준비를 한다. 암컷은 긴 산란관을 통하여 2백여 개의 알을 이 자루 속에 낳는다. 약 2~6주 뒤에 알이 새끼로 자라 태어난다. …경련이 계속되면서 한 배에 5마리 정도의 새끼가 태어난다. 새끼의 몸 길이는 1cm밖에 안 되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물 속의 작은 동물을 먹기 시작한다. 출산은 2일간 계속되며 출산이 끝나면, 수컷은 피로로 지친다.”

방대한 정보량과 이야기책 재미 결합돼

이같이 글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을 보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글을 사용하는 제1, 2단계가 지나 제3단계에서는 보충설명마다 주제를 다른 개념과 사실에 연결시켜 폭넓은 인식을 돕는다.

영국의 권위있는 학술기관의 협력과 학습심리학·시각교육학적 연구 결과로 씌어진 문장이 렉시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편집방식과 어우러진 이 책은 그리하여 “책으로 만든 박물관” “백과사전을 대신할 매력적인 책” “독창적인 입문서” “훌륭한 시각교재” “필독서, 상상적인 폭이 넓고, 잔잔한 유머가 풍부한 책” 등등 세계 각국 언론의 격찬을 받았다고 한다. 볼로냐 아동도서 전시회 등에서 그래픽스상, 삽

화가상, 우수 전집류상 등을 수상한 것도 이 시리즈의 큰 자랑이다.

특히 웅진출판사측은 현행 교과서 집필자들을 「비주얼 박물관」의 번역·감수자로 참여시킴으로써, 학부모의 시선을 강하게 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수컷이 새끼를 낳는 물고기는?”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7살부터 77살까지”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책임에 틀림없다.

— 김중식 기자

우리 산 우리 들 우리 꽃

김태정 펴냄 「한국의 야생화」

「한국의 새」(윤무부) 「한국의 버섯」(박완희)에 이어 교학사가 원색도감 「한국의 야생화」를 펴냈다. ‘꽃 박사’로 널리 알려진 김태정 박사가 무인도와 휴전선 일대, 그리고 백두산을 돌며 채집한 야생화 657종의 사진과 해설을 수록한 이 책은, 이미 출판된 「한국의 야생화 도감」에 수록된 것을 제외해 중복을 피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4천5백여종의 고등식물 가운데서 6백여종을 추린 기준을, “屬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과 화려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꽃들을 골랐다”고 설명한다. 이 책의 구성은 우선 Engler System에 따라 식물의 순서를 배열하고, 표제는 식물학계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을 취했으며, 앞부분엔 사진도판을 싣고 뒷부분엔 해설을 고유번호별로 모아 사진과 해설을 찾기 쉽게 했다. 식물의 분포지와 개화기 및 결실기 등은 기왕의 문헌에 따르지 않고 저자가 실제로 조사한 것을 기준 삼고 있으며, 해설면은 해당 식물의 생태적 특성과 형태·용도 순으로 상세히 기술할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다른 속명과 약명도 결들인 점이 돋보인다.

한 식물의 부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꽃



· 열매·뿌리 등의 부분사진을 확대해 실는 한편 사진마다 촬영장소를 밝힌 이 도감의 부록 ‘식물용어 도해’에는 꽃의 구조·씨방의 위치·태피의 종류·나무의 구분·화판의 구조 등과 같이 식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 꼭 알아둬야 할 기초지식을 담아 식물 이해에도움이 되도록 편집했다. 또한 ‘가는 오이풀’에서 ‘히어리’까지, 수록된 식물의 한국명을 가나다순으로 모은 목록과 학명색인도 권말에 덧붙였으며, 산행에 휴대하기 좋은 판형으로 제작했다.

교학사는 판형과 편집에서 종전의 도감과 다른 점들이 부각되는 「한국의 야생화」에 이어 앞으로 한국의 ‘곤충’ ‘수목’ ‘물고기’ ‘동물’ ‘파충류’ ‘거미’를 담은 같은 형태의 원색도감을 계속 출판할 예정이다.

교학사/B6/612면/25,000원